

호스피스 간호에서 의미요법 적용을 위한 생의 의미 고찰

최 순 옥*·김 속 남**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의학이 목표하는 바는 인간의 몸으로부터 질병을 제거함으로써 인간의 생명을 구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수명을 연장시키는데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치료될 수 없는 질환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환자는 의학의 실패의 증거이며, 이를 곁에 두고 바라보는 것 자체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질병의 치료와 치유의 엄연한 차이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을 하게 되면 우리의 관점은 변화하게 된다. '거룩하다'는 의미와 '완전하다'는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는 치유의 관점(이미라, 1998)에서 보면, 죽음을 앞두고 있는 환자는 의학적으로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는 최악의 패배 상황이 아니다. 이 상황은 생명을 연장시키고자 하는 치료 집착적 접근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삶뿐만 아니라 평화로운 죽음을 목표로 하는 총체적 접근이 요구되는 상황인 것이다(Dossey, 2000). 죽음은 삶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이며 인간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유한하면서도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결국 죽음은 인생의 종말이 아니라 진정한 자아의 완성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따라서 죽어 가는 환자에게 나타나는 여러 고통스

러운 현상들은 진정한 자아의 완성에 이르기 위한 통과 의례이며, 이 통과의례를 치르고 있는 환자들이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생을 정리하고 완성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호스피스 간호이다.

죽음은 인생의 종말이 아니라 진정한 자아의 완성이란 점에서 생의 궁극적인 의미와 일치된다. 생의 의미는 인간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실현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죽음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빅터 프랭클, 1980; 스즈키 히데코, 2002). 따라서 호스피스 간호의 핵심은 죽음을 앞둔 환자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살아남은 기간동안 삶의 의미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죽음과 고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되어 있는 현 사회에서, 죽어가는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로서 삶과 죽음, 그리고 인간 존재와 생의 의미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지니지 않고서는 진정한 호스피스 간호의 실현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죽음을 앞둔 환자가 임종 과정에서 내적으로 성장하여 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그들을 돌보는 간호사 자신이 준비되어야 한다. 어떻게 자신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남에게 요구할 수 있겠는가? 코리(1991)는 치료적 인간관계를 설명하면서 "상대방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원천은 현재의 우리 자신과 바람직한 자신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는 우리 자신의

*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

**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간호사들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임종환자들이 임종 과정에서 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생의 의미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적 성찰과 이를 토대로 참된 인간관과 간호관으로 자신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의미요법의 창시자인 프랭클의 생의 의미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호스피스에서의 의미요법 적용을 논의하는 것은 호스피스 간호사 자신과 호스피스 대상자들의 생의 의미 발견을 돕기 위한 호스피스 간호의 이론적 내용을 제시할 뿐 아니라 간호대상자인 인간존재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하게 하여 간호철학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자들은 우선, 프랭클의 이론을 근간으로 간호의 대상자인 <참된 인간의 본질>을 중심으로 생의 의미를 고찰함으로써 참된 인간의 본질을 구성하는 개념들을 이끌어 내고, 다음으로 참된 인간의 <본질 실현>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생의 의미 발견 개념 틀>을 구성하여 호스피스에서 의미요법의 적용을 논의함으로써 임종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의 호스피스 활동에 지침이 되고자 한다.

II. 본 론

1. 생의 의미의 이론적 고찰

1) 생의 의미의 개념

“인생은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은 본질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또는 “우리 삶에 목적이 있다면 도달할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인생에 관한 총체적이며 가치에 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생의 의미에 대한 이러한 질문은 종종 외부세계의 사건이나 체험에 의하여 환기된다. 특히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실패나 불운을 겪을 때, 번민과 고통, 병이나 죽음에 직면했을 때 생의 의미가 제기되며, 인간 삶의 형성은 이 물음에 대한 해답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Nielsen, 1980). 프랭클(1963)은 현대인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정신적 문제를 실존적 공허 즉, 생의 의미를 잃는 것이라고 하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인간으로서 정체감을 줄 뿐 아니라 생의 방향을 잡아주는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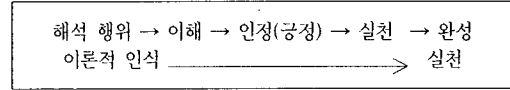
그렇다면 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 개념적 정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바이즈마르, 1990).

■ 생(生, 삶) : 존재 있음(실존), 됨

■ 의미(意味) : 뜻하는 바 그것

의미는 ‘인식과 앎’을 뜻하는 이론적 측면과 ‘행위’를 뜻하는 실천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칸트는 인간의 가장 위대한 임무는 인간으로서 그가 차지하고 있는 지위를 합당하게 실현하고,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를 이해하는 것 즉,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헷센은 인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알려면 인간 최상의 가치목표를 알아야 하는데, 인간 최상의 가치목표는 ‘인간으로 됨’이라고 하였다(요한네스 헷센, 1994). 즉 생의 의미는 인간 본질을 실현하는 것, 다시 말해 참된 인간의 모습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생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본질의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2) 참된 인간의 본질

인생에는 의미가 있으며, 인간에게는 의미를 발견하려는 의지가 있을 뿐 아니라 의미를 추구하는 자유가 있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의미요법을 창시한 프랭클은 ‘존재는 본질에 앞선다’라는 사르트르의 명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의미는 존재에 앞선다’라는 실존주의적 인간관을 바탕으로 생의 의미에 대한 철학적 근거를 전개하였다(Frankl, 1963).

프랭클은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 인간의 독특한 능력이 표현되어지는 인간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의 인간관은 <의지의 자유>, <의미에의 의지>, 그리고 <생의 의미>라는 세 가지 기본가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

첫 번째 가정인 <의지의 자유>는 어떤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으로 체험된) 행동을 하기로 또는 하지 않기로 자기 스스로 결정 혹은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의 본래적 능력으로서, 내적 인식에 머물지 않고 행위로서 실천되는 것이다.

인간은 여러 상황(상태와 결정인자)에 대해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이기는 하지만 자기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와 결정인자들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 즉, 인간

의 자유는 어떤 상태에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어떤 상태가 자기에게 다가오던지 간에 그것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자유인 것이다.

프랭클(1963, 1979)에 의하면 어떤 최악의 상태에서도 자신을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만 있는 특별한 능력이며, 이러한 독특한 능력은 강제수용소에서 경우처럼 영웅적 행위를 통해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동시에 신의 속성인 유머를 통해서도 증명된다고 하였다. 유머와 영웅적 행위는 인간에게 자기이탈(self-detachment)이라는 또 하나의 독특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 이러한 능력으로 인해 인간은 상황으로부터 만이 아니라 자신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다. 즉, 자신에 대한 자기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한 인간은 자유롭게 자기 자신의 성격을 형성하며, 자신을 어떤 인간으로 만드는가에 대한 책임이 바로 그 자신에게 있다.

이렇듯, 신체적·심리적 현상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은 그들의 수준을 초월하여 영적 차원이라는 새로운 차원을 여는 것이다. 프로이드는 인간을 심리적 차원에 국한시켜 설명하였지만, 프랭클은 인간을 더 높은 차원인 '영적 차원'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프랭클에 있어서 '영적 차원'은 인간적인 모든 것 - 의미의 의지, 목표 설정, 사상과 이상, 독창성, 상상, 믿음, 육체를 넘어선 사랑, 초자아를 넘어선 양심, 자기 초월성(인간은 자기초월성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자기 이상의 다른 어떤 것 또는 다른 인간을 지향할 수 있게 된다), 약속, 책임, 유머 감각, 선택의 자유 같은 인간의 독특한 현상들이 존재하는 자유의 차원인 것이다.

두 번째 가정인 <의미에의 의지>는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고 충족시키기 위한 인간의 기본적인 노력으로서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힘이다.

프랭클(1980)은 인간 행동의 동기 이론에 있어 프로이드의 '쾌락원리'나 아들러의 '권력에의 의지'라는 두 개념을 자기발견적인 지나친 단순화라고 보고 자기교훈적인 입장에서 '의미에의 의지'를 주장하였다. 쾌락이란 의미실현의 결과이고, 권력은 목적에의 수단이지 그것 자체가 인간 행동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삶을 향한 인간의 근본적 동기는 쾌락, 권력 혹은 물질적 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찾는 것이라고 하였다. <의미에의 의지>의 출발점이 '인간은 본질적으로 무엇인가'라고 하는 의미에의 정위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였다면 그 다음은 '인간은 어떻게 있어야 할 것인가(마땅히 되어야 할 자기)'에 대한 의미에의 대결에 이르게 된다.

즉, 자유가 책임성이 되는 성숙과 발달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

인간은 자기 개인적 삶의 특유한 의미를 실현할 책임이 있다. '책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 상태로서의 자기'와 '마땅히 되어야 할 자기' 사이의 간격, 말하자면 존재와 의미간의 긴장을 겪게 되는데, 이는 인간의 고유한 특성으로 정신건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이 긴장은 피할 것이 아니라 의미실현에의 착수를 위해 당당히 맞아야 하며, 이는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초월적인 힘인 것이다.

이상과 같이 인간은 생물학적, 심리적 존재 이상의 것 즉, 영적인 존재로서 자유롭고 책임있는 존재이므로, 실존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인 <의지에서의 자유>를 지니고 있으며 그 자유를 개인의 양심이나 가치 있는 대의를 향한 책임감을 가지고 <의미에의 의지>에로 나갈 때 비로소 완성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

세 번째 가정인 <생의 의미>는 의미 자체에 대한 논의이며, 이 가정에서 프랭클은 그의 인간관에 대한 결정적인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 가정에서 프랭클은, 인간이 독자적이고 존엄한 존재라는 점에서 더 나아가 신의 모상으로 창조된 신성을 지닌 인간 즉 초자연적인 존재임을 역설하고 있다. Logos라 함은 삶의 목표인 의미를 뜻할 뿐 아니라 우주의 통제 원리인 신, 그리고 그의 모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인간성을 뜻한다. 이렇듯 프랭클은 참된 인간의 본질을 신의 본질로 설명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신의 개념은 어떤 특정한 종교적, 제도적인 종교에서 제시하는 신의 개념을 분명히 뛰어넘는 보다 넓은 가능성을 가진 신의 개념이다. 따라서 인간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 유신론자이든 무신론자이든 관계없이 이미 원천적인 조건인 인간과 인간의 초월성(의미)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 다만 다양한 조건에 따라 인간들은 그것을 인식하고 있거나 혹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빅터 프랭클, 1979).

신학자인 칼 라너는 "신은 인간의 인간됨의 근저에 있으면서도 인간 체험의 영원한 대상이자 목표이기도 하다. 신은 인간 체험의 목표이기에 언제나 인간을 넘어서 있지만, 근저이기에 언제나 인간 안에 있기도 하다. 인간 역시 신을 모시고 있고, 신과 이미 상통하고 있는 초자연적인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그 신을 다 알아내지 못하는 역사(歷史) 내 제약자이기도 하다"라고 하였다(이찬수, 1999).

이렇듯, 모든 인간은 이미 삶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의 생명이 다 하는 마지막 순간까

지 의미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현재에 존재하는 나의 현상(나는...이다, I am ; 존재)에서 존재보다 앞에 있는 의미(나는 마땅히...이어야 한다, I ought to be)에로 나아가야 한다.

3) 생의 의미의 차원

프랭클이 말하는 의미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 (Frankl, 1979). 그중 하나는 인생의 순간적인 의미와 궁극적 의미이다. 순간적 의미란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가지는 의미를 말하며, 이는 특수한 상황과 사람 그리고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의미이다. 이에 반해 궁극적 의미란 변하지 않는 '우주의 통제원리'로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우리가 향해 움직여 나아가야 할 '생의 중심' 즉, 큰 우주적 질서를 의미한다. 궁극적인 의미는 순간적인 의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의미이다.

다른 하나의 의미 차원에는 독자적인 의미와 보편적인 의미가 있다. 독자적인 의미란 다른 사람으로 대치될 수 없는 그리고 반복할 수 없는 각 개인의 삶의 조건에 따라 주어지는 독특한 의미를 말한다. 보편적인 의미란 사회 전체 더 나아가 전 역사를 통해서 인류가 공유하고 있는 의미를 말한다. 이렇듯 의미는 각 개인에 따라 독특한 주관성을 가지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어느 정도는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 즉, 삶은 개인적 상황들의 독특한 의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들 가운데는 공통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상황들도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사회 전체, 더 나아가 전 역사를 통해서 인류가 공유하고 있는 의미들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의미들은 우리에게 보편적인 가치로 이해되는 것이며, 보편적인 가치는 창조적 가치, 경험적 가치, 그리고 태도적 가치로 이루어져 있다. 보편적인 의미는 독자적인 의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의미이다. 여기서 더 높은 차원이란 의미의 위계질서이기는 하나 가치판단을 위한 차원의 수준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인 차원을 뜻한다.

따라서, 생의 의미의 정의에 있어 '참된 인간 본질을 실현하는 것'이라는 정의는 보다 높은 차원의 궁극적인 의미를 뜻하며, 인간이 자신이 속한 세계와 관련하여 어떤 것을 의미 있는 것으로 체험할 때 이러한 체험에 대해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것이라는 정의는 각 개인에 따라 독특한 순간적이고 독자적인 의미를 뜻한다 (Frankl, 1979; 장성욱 & Burbank, 2000).

4) 참된 인간 본질의 실현 - 생의 의미 발견 방법과

개념 틀

생의 의미는 창조되거나 발명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형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무엇이 의미이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규정할 수는 없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참된 의미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

프랭클은 '완성을 향해 참된 인간존재의 본질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과정' 다시 말해 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방법인 '가치실현'에 대해 언급하였다. 인간은 인간본질의 완성을 실현하기 위해 다시 말해서, 생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세 가지의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해야 하는데 그것은 창조적 가치, 경험적 가치 및 태도적 가치이다(빅터 프랭클, 1980).

첫째, 창조적 가치는 창조적인 활동 (노동, 취미, 임무에의 열중)을 통해 의미를 발견하는 것으로 직업과 일을 통해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발견하는 것이다. 즉, 창조적인 가치는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에서 인식되고 생활전반에 걸쳐 표현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경험적 가치는 세상의 경험(예술작품, 자연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의미발견의 경험을 하는 것이다. 프랭클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취하는 행동과는 무관하게 삶의 양상을 강도 있게 경험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책을 통한 진리의 발견, 황혼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하는 등의 경험이다. 이러한 경험의 순간을 '질정 경험'이라고 하는데 한 순간이 전 인생을 의미로 넘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그러나 경험적 가치 중 가장 위대한 경험은 성숙한 사랑으로서 상대방의 유일성을 알며 그 사람의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잠재력까지 보는 것이다.

이렇듯, 창조적 가치와 경험적 가치는 풍부하고 안전하고 긍정적인 인간의 경험, 즉 창조와 경험을 통한 삶의 중요성을 다룬다. 그러나 인생이란 항상 아름답고 풍부한 경험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름다운 경험도 그리고 창조력을 발휘할 기회도 없는 부정적인 상황 예를 들면, 질병이나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의미를 발견할 것인가?

셋째, 태도적 가치는 인간이 곤경에 처했거나 또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상황은 아무 것도 달라진 것이 없지만 상황에 대한 자신의 태도 (내적인 자유)를 변화 시킴으로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고통 그리고 죄의식 및 죽음과 같은 비극적인 상황은 바로 가장 고귀한 가치와 깊은 의미를 실현할 최종적인 기회인 것이다.

즉, 태도적 가치는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며, 운명을 수용하고 고통을 견디어 내는 용기 그리고 불행 앞에서 보이는 의연함으로 나타난다.

프랭클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하여 태도적 가치를 포함시킴으로서 극한 상황에서조차 인간의 실존은 의미와 목적에 의해 특징지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 주고 있다. 이렇듯 인간에게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의미를 유지할 수 있고 그 가치를 인식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의미를 찾는 데는 개인적인 책임이 따른다. 자신의 길을 발견하고 일단 발견한 것을 지속시키는 것은 개인의 책임인 것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유롭게 실존상황에 맞서서 그 속에서 어떤 목적을 발견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생의 의미란 '참된 인간본질을 완성하는 것'이다. 우선, 인간 본질의 특성을 인식, 수용하고 현재의 자기로부터 마땅히 되어야 할 자기 즉, 참된 인간 본질의 완성이로 나아가는 것이다. 즉 자기본질을 인식(압)하고 이해하는 단계에서 그것을 긍정하고 더 나아가 보편적인 가치를 통해 실천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상의 고찰을 토대로 <생의 의미 발견>의 개념 틀을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겠다.

2. 호스피스에서의 의미요법 적용

1) 생의 의미 발견을 돕는 의미요법

의미요법(Logotherapy)이란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도록 하고 자신의 실존에 대한 책임감과 자유를 깨닫도록 도와주는 심리치료이다. Logotherapy의 logos란 의미(meaning) 그리고 영혼(spirit)이라는 두 가지 뜻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영혼이란 종교적인 의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차원을 가르키는 용어이다.

의미요법은 프랭클이 완성한 심리치료 기법으로 정신의학에 실존주의를 접목시켜 완성되었기 때문에 실존치료(실존분석)라고도 부른다. 실존치료는 인간본질의 결정론적·생산적·기계론적 관점에 반대하여 인간은 자유롭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자라는 전제는 강제수용소 같은 극한 상황 속에서 인간은 동물적인 본성으로 돼지같이 행동할 수도 있지만 죽음 앞에서도 초연한 천사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한 인간적인 신뢰에 바탕을 둔 프랭클의 확고한 신념이기도 하다. 이렇듯, 의미요법은 인간존재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 기초를 두는 치료로서, 치료기법을 발달시키는 대신에 인간의 깊은 경험을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이남표, 2000).

의미요법의 치료과정은 개인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 속에서 살고, 고통 받고, 사랑하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데 도전하도록 하는 것이다. 상담자는 대상자가 삶의 과정 속에서 보편적인 가치인 창조적 가치와 경험적 가치를 실현하고, 최고의 가치인 태도적 가치 이른바 고통의 가치를 용기와 인내로 이겨내도록 고독과 소외와 무의미감 같은 삶의 딜레마에 직면하도록 돕는다. 그래서 의미요법의 치료기법인 역설 지향법과 반성 제거법은 한결같이 자기의 고뇌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통하여 대상자가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주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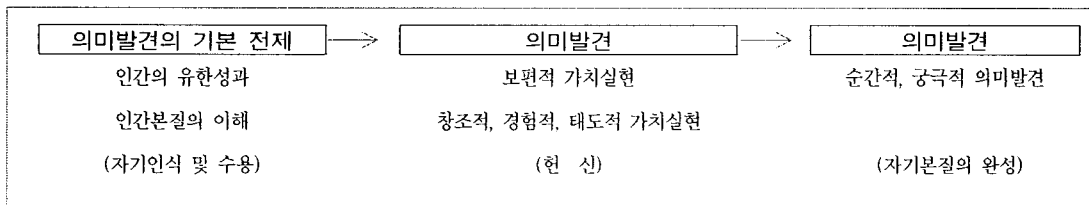
2) 죽음과정에서 의미요법 적용

의미요법에서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인간조건이지만 최고의 가치를 실현하여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의미요법은 실존의 비극적 측면, 이를테면 죽음이나 고통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도 낙관적인 심리치료요법이라 할 수 있다. 의미요법이란 변경할 수 없는 자기 운명에 대한 환자의 태도를 치료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미요법은 건강한 대상자나 치료 과정 중에 있는 환자 뿐 아니라 불치병을 앓고 있어 실제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임종환자의 경우에도 적용 가능한 방법인 것이다.

이에 본 연구자들은 죽음을 앞둔 환자가 임종 과정에서 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법을 <생의 의미 발견 개념 틀>에 맞추어 제시하고자 한다.

(1) 자기인식 및 수용: 인간의 유한성과 인간본질에 대한 이해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유한한 존재이다. 죽음이나 인생의 덧없음은 인간을 포함



한 모든 피조물의 피할 수 없는 가장 두려운 경험적 사실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무의식중에 자기만큼은 죽음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기본 인식을 가지고 있다. 퀴블러 로스는 이러한 기본 인식 때문에 인간은 죽음을 자연현상으로서 받아드리기보다 다른 사람이나 외부로부터의 악의에 찬 간섭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기피해야 할 두려운 현상으로 받아드린다고 하였다(퀴블러 로스, 2000).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마지막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방법으로, 프랭클은 자기의 유한성을 받아드리고 그 유한성과 화해를 해야 하며, 삶의 허무성에 직면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인간의 유한성이란 삶의 여정 속에서 무수히 실패해 왔다는 점, 고통을 받아왔고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과 같은 세 가지 측면을 말한다(빅터 프랭클, 1980).

삶의 허무성에 대한 인식 즉 삶의 덧없음에 대한 깨달음은 불교에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수행이다. 불교의 수행자들은 자기 존재의 덧없음 즉, 삶이란 보잘 것 없고 자신이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존재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명상을 한다(소갈 린포체, 1999).

이렇게 인간의 유한성에 대해 철저히 인식을 할 때 비로소 초월성을 지닌 인간 본질을 이해하는 다음 단계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달라이 라마는 삶의 덧없음에 대한 인식을 통해 두려움과 고통의 궁극적인 원인이 되는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였다(달라이 라마와 하워드 커틀러, 2002). 즉, 삶의 덧없음에 대한 인식은 성장을 향한 변화와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불치의 병으로 죽음을 바로 앞두고 있는 필립 시먼스는 그의 저서 <소멸의 아름다움>에서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운명을 좀더 충분히 자각하는 것이야말로 충실한 삶으로 나를 이끄는 최고의 안내자였다”라고 고백함으로써 인간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최선의 방법은 바로 자연계의 질서에서 우리가 놓여있는 처지를 완전하고 철저히 받아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필립 시먼스, 2002).

이와 같이,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진정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과 죽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정진홍, 2003). 따라서, 인간존재의 유한성을 우리 모두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하는 노력이 호스피스스의 핵심이 될 수 있다. 죽음에 앞

서 인간은 죽음 앞에서 노예가 아니라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배우고 습득하는 자유를 실천하는 존재로 드러나야 한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 하지만 호스피스스는 죽음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의 두려움을 최대한 줄여 인생의 마지막 과정에서 개인이 내적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인간의 고통과 죽음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했던 퀴블러 로스는 임종환자를 돌보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호스피스 제공자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처하는 능력을 지적하면서, 자기 자신의 유한성을 직시한 사람이야말로 임종환자를 돌보는 일에서 가장 보배로운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했다(퀴블러 로스, 2000). 그러므로 호스피스 활동을 위해 간호사들은 인간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삶과 죽음에 대한 지속적인 성찰과 숙고를 통해 내적성장을 위한 자기노력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다.

(2) 창조적 가치실현

“죽음은 이 세상에서의 사명을 다 했을 때 주어지는 은총이다”라는 것은 프랭클의 ‘인생은 일종의 과제이자, 의무, 나아가 사명이다’라는 명제를 뒷받침 한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비극적 삶에 직면해서도 낙천적 태도를 가지고 생명의 잠재된 능력을 발휘하고, 고통을 생명의 성취나 의미 있는 삶을 창조하는 임무의 완성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상의 근거에는 인생의 궁극적 의미인 초월적 영성이나 종교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현실적인 의미를 초월하는 궁극적 의미 위에서 자신의 임무를 세워야함을 말하는데, 이는 곧 창조적 가치실현의 이타성을 의미한다(위 부훈, 2002).

의미요법에서 창조적 가치는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선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가치로서 예술창작이나, 발명, 건축 등으로부터 일상적인 노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드러난다. 다시 말해서 창조적 가치는 세속을 초월하여 고도의 정신적 종교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누는 일, 타인을 향해 행복한 미소를 보내주는 일 등 모두가 가치를 지닌다.

죽음을 앞두고 창조적 가치실현에 노력한 예로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의 주인공인 모리 슈워츠 교수를 들 수 있다. 모리교수는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다가옴을 알고 제자와의 열네 번에 걸친 만남을 가지면서 죽음, 사랑, 문화, 감정, 용서와 일 등에 대한 생각들을

생의 마지막까지 토론하면서 자신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죽음을 배우기를 희망하는 창조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생의 마지막 프로젝트로 삼고 누구나 죽는 죽음을 가치 있는 일로 승화시키고자 노력하면서 인생을 의미 있게 살려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을 바쳐야 하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헌신하고, 생의 의미와 목적을 주는 일을 창조하는데 헌신해야 한다고 하였다(미치 엘봄, 2000). 이외에도 모차르트나 베토벤은 죽음을 앞둔 짧은 시간동안 극도의 창의성을 발휘해 위대한 걸작을 창조해 낸 인물들이다.

호스피스의 핵심은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남아 있는 시간동안 삶의 의미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자신이 지닌 힘과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가치를 발견하도록 해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다. 모든 인간에게는 위대한 창의성이 잠재되어 있다.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은 시간의 중요성을 알아차리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극도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고 삶을 더 즐길 수 있다(알폰소 데켄, 2002).

이야기하기, 삶의 의미를 생각하기, 자기가 달성했던 여러 가지 업적을 평가하거나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것 등은 뛰어난 창조적 경험들이다. 죽음이 다가오는 환자들이 글쓰기나 편지쓰기를 통해서 미완성된 부분을 글로써 정리하거나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남기는 작별인사나 감사인사를 하는 일도 적극적인 창조적 작업이 된다.

한편 죽음에 가까운 환자들은 과거에 이룩한 실제적인 업적을 무시하고, 업적의 부정적인 측면에만 몰두할 수 있으므로 환자를 돌보는 사람들은 그들이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성취했는지를 알게 하고, 과거 업적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균형 있게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게 해 주어야 한다. 또한 지난날을 회상하고 삶을 검토하면서 자신과 타인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과정은 죽음을 앞둔 자와 남은 자간의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준다(알폰소 데켄, 2002).

결국 죽음이라는 것이 인생이 끝나는 시기를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성장의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죽어가는 과정에서 실현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알아차리게 된다. 이처럼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창조적 가치실현을 할 수 있도록 간호사는 환자의 남은 시간을 잠재적인 창의성을 활용하는데 사용하도록 일깨워 주어 삶의 마지막 여정까지 인생의 여행을 계속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3) 경험적 가치실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은 무엇일까?

“내가 이 병을 앓으며 배운 가장 큰 것을 말해줄까? 그것은 <사랑을 나눠주는 법과 사랑을 받아드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야” 죽음을 앞둔 모리 슈워츠가 그의 제자에게 한 말이다.

또한 일본의 한 은행가는 죽기 며칠 전 그의 자식들에게 쓴 이별의 편지글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다. “내가 이렇게 평온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가 결코 강하기 때문이거나 용기가 있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나는 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사랑받고 있다>라는 강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확신이 내 속에 자라도록 해준 너희에게 감사한다”라고(스즈키 히데코, 2002).

창조적 가치실현이 자기의 에너지를 세상에 내어주는 것이라면, 경험적 가치실현은 세상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것이다. 즉, 신이나 자연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사랑을 나눔으로써 지상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다. 프랭클은 경험적 가치 중 가장 위대한 경험은 성숙한 사랑으로서 상대방의 유일성을 알며 그 사람의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잠재력까지 보는 것이라고 하였다. 인간이 인간존재의 자기초월성으로 말미암아 참된 인간이 된다는 것은 그가 언제나 자기 이외의 다른 어떤 것 또는 어떤 사람을 지향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누구나 상상을 초월하는 선에 대한 잠재력을 갖고 있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을 베풀 수 있고, 판단하지 않고 타인의 메시지를 경청할 수 있으며 그리고 조건 없이 나 아닌 타인을 사랑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요법에서의 경험적 가치발견 틀은 호스피스 활동에서 죽어가는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와 환자들과의 관계에서 간호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꺼져가는 생명 속에서 이제 더 이상 어떠한 창조적 가치도 만들어 낼 수 없는 상황에서조차도 경험적 가치는 임종환자가 마지막 삶을 소중히 여기고 편안히 죽어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된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사물에 대한 지각과 감성이 민감해지면서 신, 인간, 자연과 본질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호스피스 간호사는 임종환자에게 있어 의미 있는 대상(가족이나 친구, 신, 혹은 애완동물 등등)이 누구인가를 알아내어 그들과의 관계를 원만히 정리할 수 있도록

록 도와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간호사 자신이 환자를 포함하여 가족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 <마지막 까지 환자와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될 수 있다. 이는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불안해하는 가장 큰 원인인 마지막 단계에서 혼자라는 바로 외로움에 대한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알폰소 데켄, 2002). 누군가에 의해 받아들여짐을 체험하는 것이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최후의 일이 되기 때문이다(스즈키 히데코, 2002).

호스피스 간호에서 경험적 가치실현을 이루기 위해서 간호사는 죽어가는 사람과 허심탄회하게 성심 성의껏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마지막 생의 여정에서 환자들은 죽어감과 죽음에 대한 생각과 두려움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드러내도록 간호사는 늘 함께 있으면서 기운을 북돋워 줄 수 있다. 감정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은 죽음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내적변화를 일으키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이때 우리는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환자의 말을 경청하는 능력과 인간적인 따뜻함과 상대방에 대한 민감함 그리고 자비심을 발휘해야만 한다. 죽어가는 사람들은 삶의 과정에서 가장 상처받기 쉽고 외로운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환자가 우리를 필요로 하는 순간까지 함께 있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돌보는 과정에서 우리는 환자들과 그 가족과 함께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하게 된다. 시실리 손더스는 죽어가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일방적으로 베푸는 위치에 있지 않고 죽어가는 자로부터 배우고 있음을 알게 된다고 말했다(스즈키 히데코, 2002). 이러한 관계는 케에르 케고르가 말한 것처럼 “도움을 주는 사람 자신이 도움을 받는다”라는 역설적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며, 바로 이것이 경험적 가치실현의 진면목이다. 죽어가는 사람은 자신을 돌보아 주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받아들여짐을 체험하는 가장 큰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돌보아 주는 사람은 그들을 통해 아름다운 죽음을 배우며 더불어 삶에 덕을 쌓은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다.

현대의학이 보장하는 건 통증 없는 삶이지만 간호가 보장하는 건 바로 인간을 치유할 수 있는 조건 없는 사랑일 것이다.

(4) 태도적 가치실현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인가? 죽음을 앞둔 환자들에게 있어 “왜 내가 이

런 고통을 겪고 있는가? 이 질병의 의미는 무엇인가? 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임무이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인간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한 프랭클(1963, 1980)은 인간은 고통, 죄의식, 절망, 죽음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일단 그것에 직면하면 그 절망에 도전하여 승리 즉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인간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신의 영적 자유와 의지의 존귀함을 보전할 수 있고 인간이 가진 의지의 자유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안살고의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미요법에서 태도적 가치는 어려운 상황이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상황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즉 불가피한 고통과 같은 삶의 비극적이고 부정적인 요소들까지도, 인간이 자기의 곤경을 받아드리는 태도 여하에 따라 인간적인 업적으로 바뀌질 수 있다. 다시 말해 죽음에 압도당해서 죽어야 하는 상태에 갇히느냐 아니면 죽음에 직면하여 죽음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삶을 사느냐, 또는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은 나를 성숙시키고 단련시키느냐 아니면 나를 비참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느냐의 선택은 바로 자신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즉 태도적 가치실현은 결국 죽음이라는 소명 앞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고귀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죽음을 앞둔 사람을 돌보는 간호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불치의 병과 죽음에 대면하는 우리의 태도이다, 우리 자신이 죽음이라는 것이 무섭고 터부시되는 문제라면 환자와 그 문제를 이야기 하면서 희망을 잃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는 불가능하다.

호스피스에서 간호사는 환자들이 죽음과 고통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찾는 것을 도와주는 동반자적 역할을 해야 한다. 우선 환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말로서 표현하게 하여 감정을 건전하게 정화할 수 있도록 도와줄 때 그들은 자신의 고통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들과 고통을 나눈다는 위안을 경험하게 된다. 다음으로는 환자가 겪고 있는 고통을 통하여 내적으로 성장하는데서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다. 건강할 때 인생의 가치관은 대부분이 세속적인 것이지만 불치병에 걸려 고통 받은 환자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와 타인과의 의사소통, 그리고 한정된 시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환자들에게 죽음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죽음 뒤에 사후 세계에서 어떠한 희망을 기대하는지 찾게 도

와주는 것이다(알폰소 데켄, 2002). 인간이 단장의 아픔으로부터 기쁨을 지키는 그 괴로운 일을 탐색할 때 가장 일관되고 엄밀하고 강력한 수단이 되어 줄 수 있는 것은 종교적 언어이다(위 부훈, 2002).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 현실 속에서 고난, 죄악에 직면했을 때 어떠한 매개를 찾음으로써 죽음이라는 현실 속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통하는 희망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죽음 과정에서 사후 세계에 대한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종교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영생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해 주고 삶의 마지막을 잘 보낼 수 있는 중요한 희망의 근원이 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할 일은 죽어가는 사람들 자신들의 힘, 신념과 영성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돌보는 호스피스 간호에서 사랑과 보살핌도 필요하지만 삶과 죽음의 실제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때 우리는 궁극적인 의미의 위안을 줄 수 있게 된다.

III. 결 론

이상의 글에서 본 연구자들은 의미요법의 창시자인 프랭클의 생의 의미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호스피스에서의 의미요법 적용을 <생의 의미 발견 개념 틀>에 근거하여 논의함으로써 호스피스 간호사 자신과 호스피스 대상자들의 생의 의미 발견을 돕기 위한 호스피스 간호의 이론적 내용을 제시하고자 시도해 보았다.

질병이나 죽음에 직면했을 때 인간은 삶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게 되며, 그 해답을 얻지 못할 때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실존적 공허에 빠지게 된다. 생의 의미란 인간본질을 실현하는 것으로 참된 인간의 모습을 완성하는 것이다. 프랭클에 의하면 참된 인간의 모습이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의지에의 자유>와 개인의 양심이나 가치 있는 대의를 향해 나아가는 <의미에의 의지>를 지닌 존재를 말한다.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간은 이미 선형적으로 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신의 모상으로서 창조된 신성 즉, 영성을 지닌 초자연적 존재이다.

그러므로 생의 의미의 발견은 참된 인간의 본질을 인식, 수용하고 현재의 자기로부터 마땅히 되어야 할 자기로 나아가는 것, 즉 자기본질을 인식(알)하고 이해하는 단계에서 그것을 긍정하고 더 나아가 보편적인 가치 실현을 통해 실천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보편적 가치실현이란 창조적 활동을 통해 의미를 발견하

는 창조적 가치실현, 만남을 통해 의미를 발견하는 경험적 가치실현, 자신의 내적 자유를 변화시킴으로서 의미를 발견하는 태도적 가치실현을 말한다.

생의 의미 발견 틀에 근거하여 호스피스에서의 의미요법 적용을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죽음과정에서 의미를 발견하기 위한 의미요법의 기본 전제는 <자기인식 및 수용>이다. 이는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삶의 허무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호스피스 간호에서는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유한한 존재라는 자연의 질서를 철저히 수용하고 그 유한성과 화해를 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창조적 가치실현>을 통한 의미발견은 대상자로 하여금 남은 시간을 잠재적인 창의성을 활용하는데 사용하도록 일깨워 주어 마지막까지 자기를 내어줌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경험적 가치실현>을 통한 의미발견은 마지막 까지 환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의미있는 동반자(가족이나 친구, 신, 간호사 혹은 애완 동물 등등)를 통해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마지막 삶을 소중히 여기고 편안히 죽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태도적 가치실현>을 통한 의미발견은 위의 모든 가치실현을 통합하여 자신의 죽음과 고통을 바라보는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결국 궁극적인 생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프랭클의 의미요법은 참담했던 수용소 생활에서 프랭클 자신이 겪은 죽음과 동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은 죽음의 도전을 극복하고 삶의 궁극적 의미를 발견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정립한 것이다. 즉 의미요법은 다른 심리학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야기되는 심리적 증상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반하여, 심리적 문제를 안고 있는 환자를 적극적으로 도와서 건전한 생사관을 세우는 것을 최고의 과제로 삼고 있다. 의미요법의 이러한 배경은 임종환자와 그들을 돕는 모든 이들에게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삶과 죽음의 고통에 직면하도록 하는 용기를 준다. 이러한 의미에서 생의 의미 발견 틀을 호스피스 간호활동에 맞추어 고찰한 것은 호스피스 간호의 정착을 앞두고 의미 있는 작업이라 사료된다.

이러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살펴 볼 때, 호스피스 간호사 교육과정은 다른 전문간호사 교육과정과 달리 다양한 측면에서의 인간 이해와 아울러 인간의 고통을 총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의미요법과 같은 간호중재가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호스피스 간호에서의 의미요법 적용에 대한 이론적 내용만을 제시하였으나 이를 바탕으로 간호사 및 임종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미요법의 개발과 적용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달라이 라마·하워드 커틀러, 류시화 역 (2002).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 김영사.
- 미치 엘블, 공경희 역 (2000).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 세종서적.
- 바이즈마르, 허재운 역 (1990). 철학적 신론. 서광사.
- 빅터 프랭클, 정태현 역(1979). *무의식의 산*(*The unconscious god*). 분도출판사.
- 빅터 프랭클, 이봉우 역 (1980). *로고테라피의 이론과 실제*(*The will to meaning, Foundation & Applications of Logotherapy*). 분도출판사.
- 스즈키 히데코, 최경식 역 (2002).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야기*. 생활성서.
- 소갈 린포체, 오진탁 역 (1999).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티베트의 지혜*(*The Tibetan of Living and Dying*). 민음사.
- 알폰소 데켄, 용진선 역 (2002). *마지막까지 그대 곁에*. 성서와 함께.
- 위부훈, 전병술 역 (2002). *죽음, 그 마지막 성장*. 창계.
- 엘리자 베스 퀴블러 로스, 김진옥 역 (2000). *죽음의 순간*. 자유문학사.
- 이남표 (2000). *의미요법*. 학지사.
- 이미라 (1998). *영적간호 개론*. 현문사, 서울.
- 이찬수 (1999). *인간은 신의 암호*. 분도출판사.
- 요한네스 헷센, 허재운 역 (1994). *현대에 있어서 삶의 의미*. 이문출판사.
- 장성욱, Burbank, P. M. (2000). 노인의 생애의 의미에 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 30(2), 259-271.
- 정진홍(2003). *만남, 죽음과의 만남*. 궁리.
- 필립 시먼스, 김석희 역 (2002). *소멸의 아름다움*. 나무심는 사람.
- Corey, G., 김충기, 김현옥 역 (1991). *상담과 심리치료의 원리와 실제*. 성화사.
- Dossey, B. M., Keegan, L., Guzzetta, C. E., & Kolkmeier, L. G. (2000). *Holistic nursing* (2nd ed.). Gaithersburg, MD : Aspen Publication.
- Frankl, V. E. (1963). *Man's search for meaning*. New York : Washington Square Press.
- Frankl, V. E. (1979). *Psychotherapy and existentialism : Selected Papers on logotherapy*. NY : Washington Square Press.
- Nielsen, K. (1980). *Linguistic Philosophy and The Meaning of Life in The Meaning of Life*. S. Sanders & D. R. Cheney, Prentice Hall, Inc., 129.

- Abstract -

Inquisition of Meaning in Life for Logotherapy Application in Hospice Nursing

Choi, SoonOck* · Kim, Sook Na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of meaning in life based on Frankl's theory and to propose of hospice nursing according to conceptual framework of meaning in life. The conceptual framework of meaning in life is composed of 4 phases. According to the first phase, acceptance & awareness of self and life, hospice nurse should helps dying patient to accept limitedness of human existence and death. and according to the second phase, actualization of creative value, hospice nurse can helps dying patient to discover meaning in life through doing a deed for last time before his death. According to the third phase, actualization of experiential value, hospice nurse can helps them to discovery of meaning by experiencing of love through meetings with other people, nature, and god. According to the forth phase, actualization of attitudinal value, hospice nurse can helps them to

*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Busan Catholic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Busan Catholic University

discovery of meaning by realizing meaning in suffering and death through exercising of the inner freedom to choose bravery and acceptance in the face of death and misfortune.

As mentioned above, the Frankl's theory accords with the core of hospice nursing that helps people to accomplish human essence in suffering and death. therefore we accepted Frankl's point of view, asserted that one of the most important roles of a hospice nurse as a supporter and sustainer for dying patients is

to help patients to find meaning in life even in the course of death. To achieve the goal, hospice nurses should try to have a firm faith through philosophical introspection about life, death, human existence and meaning in life what the most important goal of life is to discover meaning in life and human have the duty and responsibility of recognizing and pursuing meaning up to the last moment of life.

Key words : Hospice, Meaning in life, logotherapy.